

안동 문화 **씨** FEEL

느낌이 있는 관광 | 2024 Winter VOL.68



CONTENTS

함께
하는

Andong



04

안동의 진정한 멋과 맛을 찾아서

의미
있는

Andong



10

막돌의 시간

맛이
있는

Andong



16

끼니가2021, 예전식당
카페 꼬따지, 구름에 396커피

재미
있는

Andong



20

안동의 사계절 감성 여정

느낌
있는

Andong



26

전통 예술 도시, 안동

알아
보는

Andong



32

공부(몸을 바꾸기)를 위해
농부가 된 공부(장인)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발행인 이동원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이지현 편집위원 권재환 원태경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죽제장길 2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2-9230 이메일 jeanleepaan@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발행일 2024년 12월(통권 제68호) 표지디자인 스튜디오 해화 편집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중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동의 진정한 멋과 맛을 찾아서

글, 사진 김균탁

어떤 지역을 여행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방문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관광한다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여행의 목적이란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한 감상과 다르게 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지역이든 그 지역을 여행한다면 그 지역의 특색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유익한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여행을 다녀온 후 그 지역만의 유명한 것들, 맛있는 것들 등의

이야기를 여행 후기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지만 그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지역의 특색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곳을 구경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곳이 어디라는 말인가? 하회마을과 같이 유명한 관광지, 혹은 봉정사처럼 오래된 고찰, 미술관에서 인정받은 맘모스와 같은



유명한 먹거리, 새롭게 지어지고 경치가 아름다운 월영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같은 유명한 지역 행사, 물론 이러한 것들도 지역을 느끼고 가기에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 곳들이다. 왜냐하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모여 각각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정확한 특색을 알기 위해서는 꼭 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그 지역의 전통 시장이다. 시장에는 그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먹거리들이 자판을 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체취부터 언어까지 모두 느낄 수 있다. 또한 전통 시장 안에는 반드시 맛집이 있어 입을 즐겁게 해준다.

그렇기에 어떤 지역을 여행하게 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꼭 시장을 찾아가야 한다. 안동 시장은 그 크기와 규모 면에서 대도시의 시장과 대등할 정도이다. 그 큰 시장 안에는 안동을 대표하는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렴한 가격에 안동의 대표 먹거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 맛집 역시 시장의 재료들을 사용하기에 비교적 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한다. 따라서 안동 시장을 가면 안동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와 인심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즉, 안동의 전통 시장 안에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모두 모여 안동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안동 시장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동의 대표적인 먹거리들이다. 어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자반 고등어, 안동 간고등어이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육지인 안동에서 어떻게 바다 생물인 고등어가 유명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농담을 해주기도 하는데, 안동댐을 건설하면서 커다란 호수가 생겼고, 거기에 대량의 소금을 풀어 고등어 양식에 성공했다는 거짓말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일부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타박을 주기도 한다. 그래도 진실은 말해줘야



하는 법. 안동에서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이유는 간단하다. 영덕이나 영해에서 잡은 고등어가 임금님에게 진상하러 가는 길, 안동쯤에 도착하면 고등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 그렇기에 오래전부터 고등어의 부패를 막기 위해 안동에서 고등어를 소금에 절였다. 그러니 안동은 서울로 가는 고등어가 소금 옷을 입고 가는 곳이다. 따라서

고등어에 소금을 뿌린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해졌고,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짭짤한 맛을 잊지 못해 안동 간고등어를 많이 즐기고 있다. 안동 시장에 가면 싱싱한 안동 간고등어를 좌판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렇게 구매한 한 손의 고등어만 있으면 온 식구가 즐거운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안동 시장에서 구경할 수 있는 진기한 풍경 중 하나는 문어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고등어와 문어. 안동에 진짜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문어에 대해서도 농담을 즐겨하기는 한다. 안동호 바닥에는 문어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안동의 모든 경조사에서는 문어가 절대 빠지지 않는다. 바다도 아닌 내륙에서 경조사에 문어를 쓴다는 것, 그리고 제사상에 무조건 문어가 올라간다는 것,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왜 문어가 올라가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안동은 양반들이 많이 사는 고장이었다. 그래서 글을 공부하는 선비들이 많았다.



문어의 '문'이라는 글자가 공부를 뜻하는 '文'이라는 한자를 뜻하기 안동의 선비들은 문어를 많이 먹었고, 조상들에게도 문어를 대접해 왔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안동에서만 전국 문어의 70%를 소비한다는 결과도 있다. 그렇기에 안동의 시장에는 문어를 파는 곳이 많다. 그리고 이 문어는 살짝 데쳐서 먹는데, 그 쫄깃함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륙이라는 안동에서 바다의 생물들이 특산품이 되어 팔리고 있다는 것, 아마 안동 시장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안동의 바다 특산품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안동 간고등어와 문어숙회의 맛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안동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

다음으로 안동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닭을 파는 곳이다. 닭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동의 특색있는 먹거리 중 하나를 떠올릴 것이다. 이 먹거리는 TV에서도 자주 나왔으며, 프랜차이즈를 통해 대도시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음식은 바로 안동 찜닭이다. 안동 찜닭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닭과 감자, 각종 야채 그리고 찜닭의 백미인 당면. 이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 짭조름하고 매콤한 맛을 내며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우게 만든다. 아!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자작자작하게 남은 안동 찜닭의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이다. 그 맛 또한 일품이기에 꼭 먹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 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들이다. 10명이 들어가면 꼭 찰 것만 같은 국밥집과 백반집들, 즐비하게 늘어선 음식점들이 시장에서 갓 구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꼭 안동 간고등어나, 문어숙회, 안동 찜닭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식당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맛집이다.

그러니 유명한 맛집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거나,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안동의 전통 시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동이 사랑하는 농산품들, 고구마, 생강, 딸기, 참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안동의 먹거리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안동 시장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 음식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말만 잘한다면 덤도 듬뿍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동 시장, 물론 다른 곳들의 시장도 동일하겠지만, 안동 시장이 가진 매력이다. 오로지 안동의 정서, 그리고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 그것은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안동 시장을 방문하면, 안동의 채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안동 시장에는 일자에 '2'와 '7'이 들어간 날에 5일장이 열리는데, 그때는 안동 사람들의 인심과 체취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다. 채소를 팔기 위해 길게 늘어선 할머니들의 구수한 말투부터 덤으로 얹어주는 인심까지 안동의 정서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그 인심은 최고조에 달해 안동의 진정한 맛과 맛을 즐길 수 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흥정하는 소리, 은은하게 코를 자극하는 음식 익어가는 냄새, 각종 채소와 해산물 등 먹거리들이 즐겁게 만들어주는 눈, 모든 것들이 안동 시장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안동을 방문했다면, 꼭

안동의 전통 시장을 방문하기를 바란다. 안동의 진정한 맛과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전통 시장이기 때문이다. 시장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은 안동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꼭 안동의 전통 시장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의 전통 시장을 방문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지역의 맛과 맛은 바로 전통 시장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지역을 방문했다면 꼭 전통 시장을 찾아가 보기를 희망한다. 안동 역시 그중 하나이다. 안동 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가게를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 시장 안 가게들은 노포라고 부를 수 있는 가게들이 많다. 노포는 사람들을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 안동 시장 역시 안동을 방문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안동을 방문한다면 안동 시장에 들러 안동의 맛과 맛을 즐기고, 안동의 냄새와 소리 등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가기를 바란다.



막돌의 시간

글, 사진 이영숙

탑(塔)은 시간 속의 역사이자 빛이다. 시간과 함께하는 탑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가지기에 하나의 역사이자 빛으로 본다.

일찍이 나약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은 자연재해와 복잡다단한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자연물에 의존해 왔다. 그로 인해 평안과 위안을 얻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소망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는 불안정한 삶에 대한 믿음이자 신앙이다.

급변한 현재의 기술 문명 발달이 아무리 삶을 윤택하게 해도 인간의 힘이 약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자연의 거대한 힘이 순식간에 다가와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면 인간의 힘은 어쩔 수 없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더러는 뜻하지 않은 역경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기도 한다.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자연은

야누스처럼 양면의 얼굴을 가졌기에 마냥 방심할 수만은 없다. 때때로 자연은 온기로 가득한 포근함과 평화로움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불시에 위압적으로 다가와 인간의 삶에 고뇌를 안겨주기도 하니까.

예로부터 인간은 자연에 순종하며 살아왔다. 자연의 힘은 위대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개인의 안위나 가족의 평화를 기원하며 살아왔다. 현재는 자연의 격변을 어느 정도 예비하거나 방지 혹은 대책을 마련하며 나아가기에 그 옛날처럼 극심한 재해에 시달리지 않는다. 하지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천재지변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해서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특정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소망을 축원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이유로 인해 삶의 길을 놓쳐버리거나 힘겨운 날을 지새울 때도 있다. 그런



아기자기한 담장을 걸치고 있는 석탑사



담장 위 동물 모양의 거석



원통전, 요사채, 산신각, 범종각으로 이루어진 석탑사

경우 어떤 대상물에 기대어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상은 희망적이지 않을까. 또는 생의 길 위에서 주저앉아 방황하기도 한다. 그럴 때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허름한 탑에 기대어 간절히 그 어떤 마음을 풀어 놓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의 바람이자 소망으로 자신의 길을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자 함이다.

안동의 진산인 학가산 자락의 호젓한 산중이다. 깊은 산기슭 계곡을 끼고 세월을 지새우고 있는 석탑사와 5층 방단형 적석탑을 만난다. 절과 탑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들판에 서로 이웃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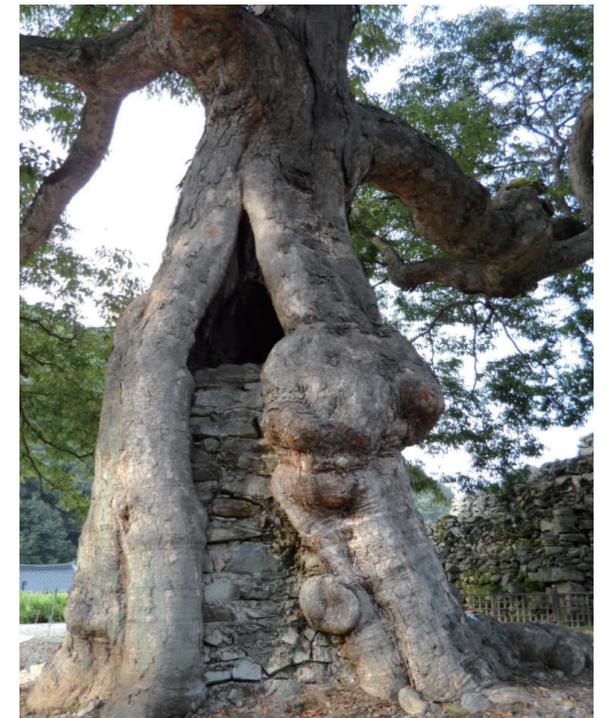
석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 말사로 신라 문무왕 681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학가산 신흥암'이라 적힌 현판으로 봐서 그 옛날에는 신흥암이었으나 현재는 석탑사가 되었다. 즉 이곳에 긴 세월 동안 석탑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석탑사(石塔寺)와 석탑리(石塔里)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천삼백 년은 훌쩍 넘어섰을까? 긴 역사를 간직했을 법한 절의 경내에는 원통전과 산신각, 범종각, 요사채가 있다. 작은 규모의 절 앞에 둘러쳐진 아기자기한 돌담이 가지런하다. 입구가 트인 왼쪽 돌담 위 밍거나 말거나 아기공룡 둘리처럼 생긴 거석이 석탑사와 함께 인근 5층 방단형 적석탑(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43호)을 건너다보고 있다.

고즈넉한 깊은 산골에 자리한 석탑사가 긴 역사와 함께 방단형 적석탑과 마주하며 알 수 없는 시간 속을 거닐고 있다. 들판에서 고단한 날을 지새우느라 마모된 막돌 탑이 얼룩덜룩한 이끼와 세월의 때를 덕지덕지

껴집고 있다. 마치 천년 지기인 양 석탑 옆의 느티나무 고목 자태가 웅장하다. 기골이 장대한 노거수가 탑신을 포근하게 품어줄 듯 넓은 가슴을 한껏 펼쳤다.

지난 세월의 허망함과 공허함에 시달렸음인가? 거대한 노거수의 병 뿜린 가슴 속에는 언제부턴가 크기가 다른 돌들과 시멘트가 들어차게 되었다. 노거수 속이 마치 탑처럼 쌓여 옆의 방단형 적석탑과 같이 미지의 시간에 놓여 끝없는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이라.



노거수 몸통 안에 채워진 막돌과 시멘트



5층 방단형 적석탑 위로 드리워진 고목의 무성한 품

천년 고찰로 다가오는 석탑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5층 방단형 적석탑은 건립 시기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로 추정된다. 몇 걸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 절과 탑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예외도 있지만, 보통 절이 있는 곳에 탑이 있고, 탑이 있는 곳에 절이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한쪽 길모퉁이로 밀려난 듯한 작은 석탑사가 그 옛날에는 들판 중앙에 자리했을 법한 제법 큰 절은 아니었을까? 불현듯 격세지감(隔世之感)에 젖어 들게 한다.

석탑리에 방단형 적석탑이 있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 하나는 명인 도사와 마고 선녀 이야기다. 돌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닌 명인 도사와 마고 선녀가 돌로 만든 말을 타고 소백산을 왕래하며 돌 밥을 날라서 먹다 흘려 놓은 흔적이라 한다. 다시 말해 명인 대사와 마고 선녀가 남긴 돌로 인해 탑이 세워졌다는 설이다. 의아심이 발동하지만, 생명을 가진 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졌음을 알려준다. 신비롭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신통방통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는 봉정사를 창건한 능인(能人) 대사에 얽힌 설화다. 영주 부석사의 승려들은 능인 대사가 학가산

골짜기 굴에 은거하며 도술을 부려 자신들의 공양미를 훔쳐 간다고 생각했다. 이에 승려 삼천 명이 동원되어 능인을 죽이려 모의했다. 부석사의 승려들이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에 모여들었다.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능인 대사가 승려들을 꾸짖자,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돌을 모아 한 곳에 쌓았다는 설이다. 능인 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 대사가 부석사의 승려들을 동원하여 석탑리에 탑을 쌓게 했다는 이야기다.

모든 것에 영험한 힘을 가졌을 법한 특정 인물에 의해 방단형 적석탑이 세워졌다는 설화가 못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탑이 건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처음부터 현재의 모습이었는지조차 정확지가 않다. 분명한 것은 애초부터 막돌로 탑이 지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석탑리의 탑은 일반적인 탑들과는 차별화가 느껴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품이 제법 넓다. 주로 부처님의 설법을 떠올리게 하는 탑은 하나의 무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탑이란 부처의 유골이나 유품 등을 모셔 공양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여 탑을 쌓았는데 주로 돌이나 나무, 흙이 주재료가 되었다. 물론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 전탑(塼塔), 목탑(木塔), 석탑(石塔) 등 여러 양식을 갖지만, 이곳의 탑은 오로지 돌만으로 지어졌기에 석탑이다.

특히 학가산 깊은 골에는 돌이 많이 흩어져 있었기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천차만별인 돌이 아무렇게나 자리하고 있어 이름하여 막돌이라 한다. 막돌은 별 쓸모없이 제 맘대로 생긴 돌로 잡석이라 불리기도 한다. 보기에 따라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 막돌이자 잡석들이 모여 하나의 형체를 가지게 되면 시선은 달라진다. 비록 매만지거나 다듬은 흔적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쌓아져 탑의 형체를 가졌다면 더는 쓸모없는 돌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탈바꿈된다. 가끔 탑돌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나름 막돌 탑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일찍부터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에

기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을 숭배했다. 그러했기에 옛날 민초(民草)들은 오며 가며 사방에 널려 있는 자연석을 주워다 탑을 쌓았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삶은 대동소이하기에 서로의 성품 역시, 그리 다르지 않을 줄 안다. 이것은 비슷한 사고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돌을 쌓는다는 것은 정성과 소망을 한층 한층 쌓는 것이기도 하다.

문득 탑과 인간이 공생 관계로 서로 위해주고 보듬어 주는 사이라 생각된다.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이용하여 만든 탑에 기대어 평온함을 얻고자 한다. 탑 역시 인간의 손길에 기대어 하나의 형체를 갖추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대상이라 생각한다.

한편, 견고하게 잘 이루어진 탑에 비해 일정한 모양을 가지지 않은 막돌 탑은 심한 폭풍우에 노출될 경우 언제까지나 온전한 형태를 지니기가 어렵다. 무심한 시간 속, 어느 때 비바람이 막돌 탑을 흔들어 놓았는지 층층이 쌓인 1층 막돌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다. 조금씩 원래 자리를 이탈해 밖으로 삐죽이



영원한 지기인 느티나무 고목과 5층 방단형 적석탑



불전함 위 유리관 속의 촛불과 부처님 피규어

튀어나온 돌들의 모습이 어설피다. 머잖아 재정비를 위한 손길이 필요하다.

막돌로 지은 탑에는 특별한 자재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이름 그대로 네모지게 만들어졌기에 방단형이라 부르며 돌로 쌓았기에 적석탑이라 부른다. 막돌탑은 숙련된 건축기법이나 주도 면밀성과는 거리가 멀다. 아마도 크기가 제각각인 돌이 무작위로 쌓였기 때문이리라. 그러하기에 다듬고 재단하는 과정이 그다지 필요치 않기에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주변에 널린 막돌을 그대로 이용하여 쌓은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다듬은 흔적은 없다. 특별한 꾸밈이 없어 지극히 자연스럽다. 오직 막돌로만 이루어졌기에 탑은 순수하다 못해 소박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도 적석탑은 일반적인 탑처럼 옥개석이나 기단 면석이 없다. 이러한 것은 막돌탑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언 듯 보면 돌계단 혹은 돌무덤이나 피라미드로 와 닿는 5층 방단형 적석탑은 기존에 늘 봐 오던 반듯한 모양의 탑들과는 사뭇 다르다. 보통 탑들은 세로로 날씬하게 뻗어 올라가지만, 방단형 적석탑은 가로로 넓은 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일까, 무엇이든 편안하게 안아주고 흡수해 줄 것만 같다. 돌의 가공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 방단형 적석탑만의 매력이다.

석탑리의 탑은 사방 각도와 높이가 약간은 제멋대로다. 정확성, 승고미, 엄숙함, 세련미, 우아함, 견고함, 거대함 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더러는 어설피름 속에 피어나는 자유로움은 완고함이나 절대적인 각을 만들지 않아서 부담이 없다. 탑을 이루는 제각각의 돌이 크기와 모양을 달리하면서도 두루뭉술한 어울림을 가졌다. 자로



1층 탑신 위에 용기종기 모여 앉은 작은 돌탑

재단한 듯한 정확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미가 배어 있어 멋스럽기까지 하다.

꾸밈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는 허술한 면이 깃들기 마련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수한 자연미로 지극히 인간적인 면으로 느껴진다. 특별한 기교를 느낄 수 없는 순박한 탑은 언제봐도 여유롭고 넉넉함이 스며 있다. 여러 형태를 가진 막돌의 자리매김이 자유롭다.

겉으로 보기엔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만들어진 듯하지만, 전체를 잘 둘러보면 나름 견고한 뼈대도 가지고 있다. 각 층 네 면의 모서리에는 어디서든 쉽게 구했을 법한 편마암의 판돌 4장이 자리한다. 그 어떤 세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듯한 판돌이 굳건한 지지대이자 기둥처럼 와 닿는다. 이렇듯 제법 큰 판돌이 자잘한 수많은 돌이 자리하도록 판을 깔아 놓았다. 판돌 안으로 크고 작은 막돌이 마치 인간 군상들인 양 무수한 소망을 끌어안고 뺨곡히 들어차 있다.

돌 하나 하나는 무수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다. 생긴 크기와 모양을 달리하는 돌이지만, 어느 돌 하나 내치지 않으려 함께 자리하고 있다. 판돌 안으로 채워진 주먹마한 돌과 자갈 마한 돌들이 서로 어울려 공간을 메우고 있다. 탑이라는 하나의 틀이자 형체 안에서 크기와 모양을 따지지 않고 어울린 모습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판돌 안에 채워진 막돌들이 나름 질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순도순 사이좋게 섞여 들었다. 이렇듯 각기 다른 모양의 돌들이 모여 일상의 안위를 기원하며 무한한 시간의 길 위에 놓였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개성적인 사람들의 소원을 헤아리게 한다. 한 공간에서

생긴 모습 그대로 자리한다는 것은 자유로움 속에서의 단합과 화합을 꿈꾸게 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기단석을 가지지 않은 이 탑의 주재료인 돌이 하나의 탑으로 모양새를 갖춘 것은 함께 하려는 것에 있다. 각기 모양새가 다른 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함께 동화되어 나가려는 것에 있다.

우리 삶 역시, 제각각 다양성을 가지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원만한 어울림을 추구한다. 이런 것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모습으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려는 겸허한 자세다. 모든 것을 떠나 자연물인 돌탑은 민초(民草)의 정성이 녹아 있는 서민의 마음이자 온정(溫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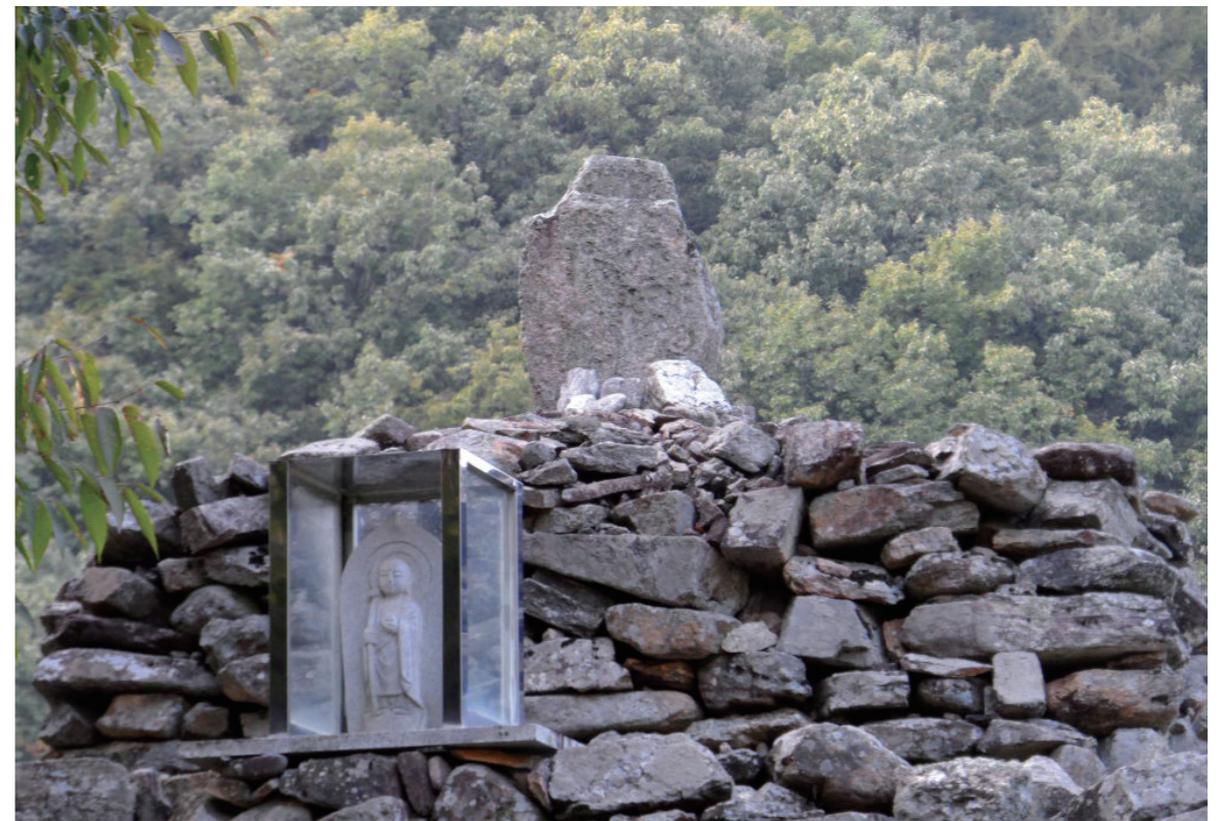
바닥에 불전함이 서 있다. 그 위 1층 탑신에 놓인 유리관 속에는 소원이라 적힌 촛대에 불이 밝혀져 있다. 누군가의 소원을 밝히느라 피워 놓은 것이다. 불을 밝힌 자의 성심을 헤아렸음인지 촛불은 꺼질 줄 모른 채 소담스럽게 타오르고 부처님의 모습을 한 작은 피규어는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4층 탑신 한쪽 유리관 안에 서 있는 부처님 석상 역시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세상 가득 자비로움이 흘러나올 듯한 부처님의 유연한 고운 미소다. 맨 위 5층에는 옥계석을 상징하는 듯 넓적한 큰 돌이 가슴에 꽃무늬를 희미하게 새긴 채 서 있다. 인위적인 꽃무늬 그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득 불두화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돌무더기가 어우렁더우렁 서로 어울려 5층 방단형 적석탑을 이룬 석탑리에 사람들이 간간이 찾아든다. 소박한 석탑은 서민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도록 만들어졌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1층 탑신부 위의 자잘한 막돌 탑들이 많은 이의 염원을 지새우고 있는 것으로 다가온다. 현재의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쌓아 올린 것이다. 이처럼 막돌 탑은 크기를 떠나 오가는 누구든지 돌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된 것은 아닐까.

햇살이 맑은 날, 막돌 탑 위에 머문 빛의 알갱이들이 꿈의 씨앗을 엮어내는 듯하다.



안동의 맛

글, 사진 이희철

• 끼니가2021

끼니가2021은 다양한 종류의 국수와 묵밥을 주메뉴로 영업하는 현지인 맛집이다. 안동에서 영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북후면 본점은 용상점과 함께 사장님 내외가 각각 맡아서 운영하며, 따뜻한 정과 정성을 느낄 수 있다. 주요 메뉴로는 잔치국수, 차돌된장국수, 닭곰탕국수, 돼지감자서리태콩국수 등이 있으며, 특히 안동의 감성을 살려 문어를 올린 특별한 국수도 판매하고 있다. 넓은 홀과 분리된 공간에 테이블이 잘 배치되어 있어 단체나 가족 모임으로 오기 좋다. 주문은 각 테이블에 비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 이곳에서 맛본 닭곰탕국수와 차돌된장국수는 국수를 다 먹은 뒤 남은 국물에 공깃밥을 말아 먹을 수 있어 든든함을 더해준다. 함께 나오는 반찬은 단아한 유기그릇에 담겨 나와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한다. 맛과 정성이 어우러진 끼니가2021에서 특별한 한 끼를 즐겨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관광단지로 59
-  **전화번호** 054-823-0666
-  **영업시간** 10:00~21:00
(브레이크 타임 15:00~16:30, 마지막 주문 20:00)
-  **휴무일** 매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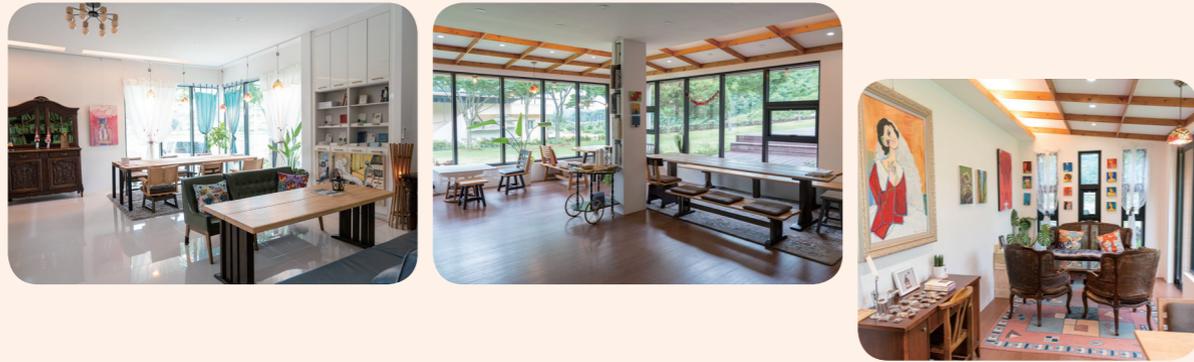


• 예전식당

예전식당은 된장, 청국장, 간장, 고추장 등을 직접 담가 조미료 없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가정식 식당이다. 아름다운 앞마당 정원에는 수많은 장독대가 자리하고 있고,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발효 식품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식당 본관 외에도 별관 1~2층이 마련되어 있어 단체 예약이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좋다. 매콤한 고추장 불고기 썸밥을 주문했는데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중 하나를 곁들일 수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넉넉하고 신선한 쌈 채소와 정갈한 반찬은 매일 조금씩 다른 메뉴로 준비된다고 한다. 사장님 내외가 소박하게 운영하는 식당으로 점심시간에만 영업하며 재료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참고하길 바란다. 전통의 맛과 따뜻한 정이 담긴 예전식당에서 특별한 식사를 경험해 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와룡면 퇴계로 972-5
-  **전화번호** 0507-1425-1660
-  **영업시간** 11:00~15:00(마지막 주문 14:35)
-  **휴무일** 매주 월요일





카페 꼬따지

카페 꼬따지는 세계문화유산 봉정사 가는 길에 있는 김종희미술관과 함께 운영되는 매력적인 카페이다. '꼬따지'는 프랑스어로 '시골집'을 뜻하며, 그 이름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160여 년 된 느티나무 아래 자리한 정원은 잘 가꿔져 있어 고즈넉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앤티크한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어 시골집 같은 편안함을 선사한다. 내부에는 미술관의 감성을 반영한 아트웍과 소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예술적인 매력을 더한다. 이곳에서는 매장에서 직접 구운 베이커리와 음료를 맛볼 수 있다. 특히 부드러운 식빵과 함께 제공되는 달콤한 블루베리 잼이 정말 좋았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카페 꼬따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분위기를 느껴보자.



주소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41-5
영업시간 10:00~18:00

구름에 396커피

구름에 396커피는 안동의 대표 브랜드 전통 리조트 구름에와 396커피 컴퍼니가 만나 탄생한 특별한 한옥 카페이다. 총 7채의 고택을 리조트로 운영하는 전통 리조트 구름에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이곳은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 속에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료와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고급스러운 원두로 내린 핸드드립 커피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창 너머로 보이는 고택과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구름에 396커피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자.



주소 경북 안동시 민속촌길 190
전화번호 070-4912-1767
영업시간 08:00~18:00
휴무일 연중무휴



20대 대구 직장인과 알아가는 안동의 문화관광

안동의 사계절 감성 여정

글 최현정 사진 최현정, 안동시

안동으로 향하는 길은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11월의 가을은 유독 특별했다. 대구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차창 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주었다. 백백한 도시 풍경에서 벗어나 길게 늘어진 나무들이 붉고 노란빛으로 물든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올해는 유독 따뜻한 가을이라 대구는 아직 초록빛이 많이 보이지만,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과 들이 어우러진 안동의 자연은 창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바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함이 느껴지는 이곳에 발을 디디니 긴장이 풀리고, 천천히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다. 남쪽의 따뜻한 초록빛과 북쪽의 깊은 가을 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안동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설레게 했다.



유교랜드 - 현대적 전통, 복합문화공간을 경험하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이름부터 놀라운 유교랜드다. 병행할 수 없는 “유교와 랜드”는 안동이라 가능한 수식어가 아닐지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 유교랜드는 전통 유교 문화를 주제로 한 이곳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전통문화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해되었다.

전시 공간은 디지털 미디어와 체험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모든 연령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특히, ‘儒niverse’ 전시관에서는 유교의 가르침과 조상들의 삶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잘 느낄 수 없는 아름다운 전시 프로그램을 관람하며 유교 문화에 깃든 조상들의 삶과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이었다. 첨단 기술로 표현된 유교 철학은 새롭고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고전의 아우라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체험 공간에서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전통문화를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안동만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었다. 전시를 둘러보며, 나는 유교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지혜임을 깨달았다.



구름에 396 커피로 이어진 오후의 여유

유교랜드를 둘러본 후,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구름에 리조트로 발길을 옮겼고, 안동의 대표적인 숙박지인 이곳은 산속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월영교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넘으면 카페 구름에 396 커피가 나타났다. 카페 내부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넓은 창을 통해 보이는 탁 트인 전망 덕분에 깊은 여유를 주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바깥의 가을빛을 감상하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여유로움이 찾아왔다. 짙은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창 너머로 보이는 한옥과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고요히 흐르는 풍경이 눈을 즐겁게 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며, 바쁜 일상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했던 여유를 만끽했다. 햇살에 따라 서서히 주홍빛으로 변해가는 나뭇잎을 보며, 이 가을의 끝자락에 이런 한적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붉어지는 풍경은 사진으로 담아 두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오늘 하루의 여정을 정리하며, 다시금 유교랜드에서 느낀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조화를 떠올렸다. 이런 공간에서의 작은 순간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슬며시 깨달았다. 앞으로도 이런 곳을 찾아 여유를 느끼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카페에서 나와 주위를 산책하기로 했다. 걸음을 옮기며, 주변의 풍경을 음미했다. 바람에 실려 오는 기분 좋은 느낌은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기에 충분했다.



월영교 - 나무다리로 만나는 낭만 산책

걸음을 옮겨 리조트 아래 위치한 월영교를 산책하기로 했다. 이곳은 안동호를 가로지르는 387m 길이의 목조 다리로, 안동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명소였다. 다리를 걷기 시작하자, 잔잔한 물결 위로 반사되는 다리 조명과 은은한 달빛이 만들어낸 풍경은 환상적이었다. 걸음마다 나무 데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은은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나무로 만든 다리를 밟는 순간마다 느껴지는 파스함이 발끝에서부터 퍼져 나갔다.

다리 중간에는 작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 앉아 바라본 풍경은 한층 더 특별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조명과 그 뒤로 이어진 산의 실루엣은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친구와 함께 이곳에서 사진을 같이 찍으며, 내내 대화를 이어갔다.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주변의 나무들과 물소리, 그리고 바람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소리가 나를 감싸주었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다 건너고 나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월영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고, 그곳에서 느낀 감정은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았다. 이곳에서의 산책은 나에게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준 특별한 경험이었다.

다리를 건넌 후에는 월영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넓고 푸른 잔디밭과 잘 가꾸어진 꽃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밤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며, 발 아래의 풀잎이 부드럽게 발을 감싸주었다. 우리는 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곳의 고요함과 자연이 주는 평화로운 분위기 덕분에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걷다 보니 작은 연못이 나타났다. 물가에 앉아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들렸다. 바람에 실려 오는 나뭇잎의 속삭임과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가 어우러져,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 일어나 공원을 바라봤다. 길을 따라 핀 꽃들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저녁식사 -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한 진성식당에서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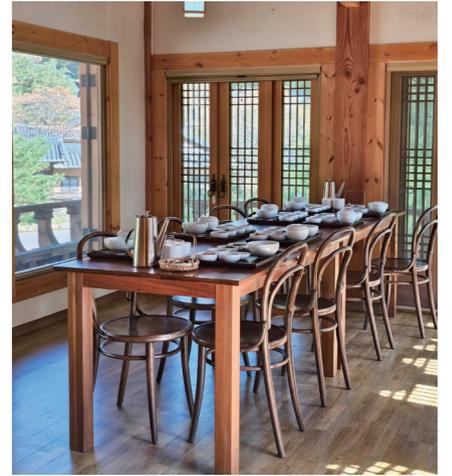
견다 보니 배가 고파진 우리는 택시를 타고 안동에서 유명한 진성식당을 방문했다. 이곳은 안동의 대표 메뉴인 돈가스와 제육볶음 뚝배기로 유명한 곳으로,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가 반겨주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감사의 메시지와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 우리는 메뉴판을 보며 서로의 기억을 더듬었다. “기억나?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자주 가던 분식집?” 친구가 말했다. “그때 먹던 돈가스와 제육볶음 생각나!”라고 대답하며,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서 찾던 분식집의 맛이 떠올랐다. 그때의 추억이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긴 기다림 끝에 나온 돈가스를 한입 베어 물자, 바삭한 식감이 입안에 퍼지며 어릴 적의 추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첫입에서 느껴지는 고소한 맛은 마치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친구와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떠오르며, 그때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돈가스의 바삭함과 함께 전해지는 추억의 향연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이어서 나온 제육볶음 뚝배기는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이었다. 뚝배기 속에서 따끈하게 먹는 제육볶음은 그 어느 음식보다 든든하게 마음마저 채워주었다. 매콤한 양념이 잘 배어든



제육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며, 가을의 저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야,”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느꼈다. 음식을 즐기며 우리는 학창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친구가 “그때 우리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기억나?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 채웠잖아.”라고 말하자, 나는 그때의 힘든 기억과 함께 느껴졌던 성취감이 떠올랐다. 좋은 추억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만족하며 식당을 나섰다. 바깥 공기는 선선했고, 저녁의 고요함이 우리를 감쌌다. 진성식당에서의 저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오랜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음식에 담긴 추억들은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고,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안동의 저녁은 이렇게 맛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구름에 리조트 - 여유로운 밤의 끝에서 만난 침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 고요하게 잠든 안동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창 너머로 가만히 빛나는 강물과 반짝이는 별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밤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밤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자, 어메니티로 제공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마시기로 했다. 차의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 따뜻함이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도심에서 느끼기 어려운 깊은 고요와 평화로움을 안겨주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는 마치 나를 더욱 편안하게 감싸주는 듯했다. 창가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나는 오늘의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안동에서의 하루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여유로운 침표처럼 따뜻하게 남았다. 다시금 떠오르는 추억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안동의 모습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고요한 밤에 침을 만끽할 수 있었다. 바깥의 풍경은 자연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안정감을 주었고, 잠시나마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 여행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기를 기다렸다. 고요한 밤이 나를 감싸고, 별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다. 오랜만에 가진 안동에서의 하루는 오랫동안 기다린 여유로운 침표처럼 따뜻했다. 다시금 떠오르는 추억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안동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올해 나는 이 간행물 원고 작성을 위해 안동을 좀 더 섬세하게 경험하고자 노력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걸으며, 화사한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의 상큼한 공기와 함께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여름에는 푸르른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물놀이를 즐기고,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던 그 순간들이 떠오른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느꼈던 짜릿한 기분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산과 장엄한 강의 풍경을 마주했다. 붉고 노란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자연이 그려낸 아름다운 작품 같았다. 친구들과 함께 단풍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초겨울이 찾아오면, 안동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테다. 안동의 변치 않는 풍경과 사람들은 언제나 내 발길을 이끌리라. 이끌림에 따라 또다시 찾은 안동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나의 내일도 기대된다.

전통 예술 도시, 안동

글 윤장원 사진 안동시 외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시작했던 원고가 어느덧 11월에 접어들고 마지막 원고를 집필하게 되어 기분이 참 오묘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올해 초 세웠던 목표나 계획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 것도 이룬 것도 없다는 생각에 사실 반성하는 연말을 보내려고 합니다. 처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앞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원고를 쓰면서도 처음엔 흥미롭고 개성 넘치는 글을 쓰고 싶었으나 가끔은 그저 빨리 내용만 채우려는 단지 '일'로만 느껴지는 적도 있던 것 같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마지막 원고인 만큼 최선을 다해 안동의 예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하더라도 알찬 끝맺음 정도는 되어서 여러분이 즐거운 글 읽기 시간을 가지면 좋겠으니까요. 첫 3월호를 예술에 관하여 쓴 후 이어 6월호엔 설화나 전설 등을 8월호엔 맛집이나 음식 등과 관련하여 투고했었는데, 다른 집필자분들과 겹치는 내용이 종종 있어 이번엔 특히 예술과 관련해서 집필해 보려고

합니다. 첫 호에서 이야기했듯 '안동의 예술'이란 주제에 대해 4번에 걸쳐 글을 쓴다는 것이 내용이 정말 한정적이고 쉽지 않아서 핑계 대듯 이것저것 엮어 썼지만, 너무 핑계만 앞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술에 관한 주제에 맞게 집필하려고 노력했으니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지내면서 너무나 흔하고 자주 접해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있었는데, 안동은 여타 도시와 비교하여 전통 공예들이 정말 잘 발달해 있고 더불어 일상생활에 잘 접목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길을 걷다가도 전통 한옥과 서원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건물에 걸려 있는 편액(扁額, 전통 건축물에 있는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과 현판 등을 보면 서예와 그를 위한 한지 또한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발달해 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동에 거주하는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지나쳐갔던 한지와 서예, 도자기와 목공예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지

먼저 한지는 한국 전통 종이로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 고유의 종이입니다. 닥나무 껍질을 재료로 하여 튼튼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을 가졌음에도 우수한 내구성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서적, 그림, 각종 공예품과 예술 작품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도 한지 공예를 배우셔서 집안 곳곳에 작은 선반이나 다과를 위한 작은 식탁으로 썼던 기억이 종종 납니다(그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안동은 특히 조선 시대부터 한지를 만드는 기술과 이를 활용한 예술로 유명해서 고급 서책이나 병풍 등을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병풍이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 안동 한지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날은 현대 예술과 접목하여 캔버스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한지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예술품의 재료로도 쓰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이 전통 예술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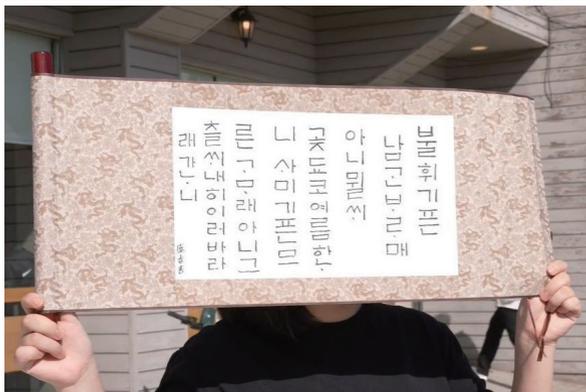
10월경 안동 한지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 글을 보시는 독자분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중력을 위해 바둑이나 서예를 배우러 보내는 집이 많았고 학교 미술 시간에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서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안동은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과 같은 학자들을 배출한 유교 문화의 중심지로 한지를 사용한 서예가 잘 발달했습니다. 안동의 서예는 유교적 가치와 인품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어 글자의 형태와 더불어 서체에서 풍겨 나오는 무게감과 정신적 깊이가 특징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중시하는 겸손함과 절제, 균형감이 잘 드러나며 단순히 글씨를 쓰는 행위를 넘어 내면 수양과 예술적 정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안동의 여러 서원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남겨 왔습니다.



한지상설전시관, 안동한지 제공





안동 한지 서신 보내기 체험, 안동 팝업스토어-문안인사, 부산 광안리 개피



저는 아직도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항상 큰아버지께서 제사 지방을 쓰기 위해 서예를 하시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제사를 지낼 지도, 지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지도 확실하지 않은 현대 사회에서 예 또한 점점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안동에서 다양한 서예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을 비롯한 여러 문화 공간에서 서예 전시회를 열어 유교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서예를 다시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통 서예를 현대 예술과 결합하여 대중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니 서예를 배워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청남 오제봉 서예 10폭 병풍, 밀양시립박물관 소장

도자기

안동 도자기 예술은 유교적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주로 백자와 청자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도자기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그놈이 그놈이지만, 안동 백자는 차분하고 우아한 흰색 바탕에 단순한 문양으로 소박하면서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 안동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청자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푸른색과 유려한 곡선과 섬세한 문양이 특징으로 안동의 자연과 전통 생활공간에 상징적인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고가의 청자 백자들도 있던데 저희 집안에는 아직 이런 골동품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아직도 안동에는 도자기를 빚고 있는 도공분들이 계시는데 오늘날은 전통 기법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과 생활 공예품으로의 도약을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이나 차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새로운 분위기와 변화를 위해 안동 도자기들을 구매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산권역 예끼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백자청화운룡문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안동소주일품주식회사 제공

목공예

안동의 목공예는 주로 전통 가구와 공예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책상, 농, 서류함 등 일상생활 속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여전히 각 집안 조부모님의 댁에 가면 한 번쯤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목공예들과 안동 목공예의 차이점이라면 실용성뿐 아니라 대체로 간결하고 정교히 제작하여 원목의 질감과 색을 그대로 살리는 자연스러운 미감을 중시하고 화려함을 피하고자 했는데 이 또한 유교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과 전통 가구에서 그 정수를 볼 수 있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도산서원과 같은 여러 서원이나 고택을 통해 안동의 목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유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던 장소를 넘어 안동의 예술적 감성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건축물로 기둥과 대들보, 지붕의 곡선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기둥과 보, 창호, 지붕 등 모든 구조가 전체적으로 비례하여 균형에 맞게 건축하여 차분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주며 장식 요소를 최소화해 고아한 분위기와 함께 유교 정신인 검소함과 수수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공예의 예술적 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낙동강이 흐르는 안동의 산세와 계곡을

배경으로 자리 잡아 자연경관과 어색함 없이 유기적으로 어울리려 자연과의 조화를 최고로 극대화 한 건축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람과 자연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유교적 가르침에 비롯하여 이는 건축물 자체만의 미학을 고려한 다른 문화권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안동, 우리 고유의 차별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 곧 올 겨울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 도산서원에서 실제 숙박은 불가능하니 관광 오시면 꼭 들리는 월영교 근처에 아주 예쁜 한옥 숙소에서 '여기가 도산서원이다!'라는 생각으로 묵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산서원

유교 문화

앞서 간단히 소개한 한지, 서예, 목공예, 도자기 등을 통해 바라본 안동의 예술적 유산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교 문화입니다. 조선 시대 유교 문화는 학문과 예술을 포괄하는 생활 철학으로 안동은 특히 유학자와 사대부를 많이 배출하여 유교적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동의 예술은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와 미래를 위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안녕하...

안동은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다양한 예술 행사와 축제를 통해 오랜 전통의 역사와 의미를 함께 나누며 즐기고 곧 올 겨울엔 한층 더 조용하고 평온해진 안동의 또 다른 새로움을 맞아 차분하면서도 고즈넉한 각기 다른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는 평생을 살아온 고향으로 누군가에게는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일 안동이 이 잡지와 제 글을 읽으며 한층 더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원고를 쓰면서 늘 그렇듯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글을 쓸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책을 읽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마음을 다잡지 않고는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나마 누군가에게 보여줄 글을 쓰고, 누군가 읽어줄 사람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더 좋은 글을 들고 오겠다던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던가 이제 약속드리진 못하지만, 제게 다가온 행운처럼 독자 여러분들도 늘 곁에 행운이 깃들고 안녕한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팝업스토어-문안인사



농업회사법인 명품안동소주 주식회사 제공



전통리조트 구름에 제공

생태 예술 축제, '하회, 토제' 를 마치고

공부(몸을 바꾸기)를 위해 농부가 된 공부(장인)

글 김국희 사진 트라이벌마커스코리아 라이언

어린 한 시절, 나를 가장 강렬한 몰입 상태로 이끈 경험은 흙 놀이였다. 집 옆으론 낮은 언덕이 있었고, 덕분에 삼 남매는 일요일 아침마다 삼매에 빠졌다. 흙을 파거나 물을 섞어 모양을 만들어 내는 일은 아무리 계속해도 질리지 않았다. 밥때가 되어도 오지 않는 우리를 데리러 나온 엄마가 흙덩어리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된 우리를 크게 혼내시며 집으로 끌고 갔지만, 밥을 다 먹은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더구나 흙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어진 길을 따라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태어나 자란 장항 회진면은 그 작은 곳에 다양한 자연의

모습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다. 제주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가 바다에서 한 시간 넘어 모래를 가지고 놀 때 어린 날 흙밭에서의 시간을 떠올린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 오랫동안 자연물과 텅구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인 것도 당연지사. 그러다 어떤 질문의 끝을 살짝 잡아당기게 되었다. 왜 어른이 된 나는 흙 놀이를 즐기지 않게 되었을까. 이전에도 외출이 잦았지만, 그 이후 더 자주 아이와 밖으로 나갔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려, 눈이 오면 눈을 만지려, 풀숲 사이, 물이 흐르고,



파도가 치는 한 가운데에 온몸과 마음을 던졌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장소와 상황에 더 오래 내 몸과 마음을 배치하기 위해, 농사를 선택하기에 이른다. 글쓰기와 시각 기반 작업으로 컴퓨터 앞에 주로 앉아 있던 내 몸을 흙과 풀 한 가운데 가져다 놓기 위해, 작업의 방법(직업)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필연적으로 아주 깊이 넣어 두었던 들뢰즈와 랑시에르와 진은영을 다시 꺼내게 되었다.

“그렇지만 문학이 어떤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순수예술의 영역에 남기를 고집하지 않고 공동체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 - 되기의 운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타율적이 된다.” (중략) “미학적 타율성은 예술이 공동체적 삶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삶에 기여한다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형성 방식들이 예술의 내용과 형식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해 오는 것을 의미한다.”¹⁾

글을 쓰기보다는 글에 쓰려고 했던 지향대로 살아 버리는 일을 작업하기로 한 다음부터 나에게 작업은 더이상 책, 퍼포먼스, 공연 같은 형태가 될 수 없었다. 기록물들을 최종으로 전시나 책으로 풀어내긴 했지만, 그것은 작업의 결과 남게 된 잉여물에 불과했고, 삶으로 풀어내는 그 과정만이 온전히 작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내가 살아내지 않은 기록에 대해 스스로 과하게 거부하는 병적인 시간을 지나, 하회의 땅 위에 누워서 나는 생각했다. “함께 했어야 가능한 작업이었구나”

1) 진은영, 「한 진지한 시인의 고뇌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2010년 여름호(통권 148호)』, 창작과비평, 2010.



2023년, 정희진 선생님은 정희진의 공부 팟캐스트에서 공부의 한자 공(工)을 공예품으로 설명하셨다. “엄청난 몸의 혼육”을 통해 “몸을 변화시키는 일”이 공부라는 이야기이다. “내 몸이 세상이라는 공방(工房)에서 대장장이, 쇳물, 망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환을 거듭해, 기(技)와 예(藝)를 몸에 새기는 것”. 몸의 변화를 끊임없이 이끄는 사람이 결국 장인이 되는 것이다.

이 한 번의 농사와 생태 예술 축제로 나 자신이 장인이 되었다는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토제, 그리고 땅 옆에 서 있었던 지난 과정이 나에게 공부를 위한 시간, 혹은 공부 그 자체가 되었다. 2022년, 농사의 과정을 기록하는 시간을 거쳐 2023년 ‘하는 척만 하는 농사’로 첫 농사를 마(망)치고, 2024년 드디어 과정이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수확한 것이다.



추수를 마친 섬유용 대마밭, 부드러운 땅 위를 맨발로 내디뎠을 때의 감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밭 위에 작업자이며, 농부인 나를 완전히 놓히고 나서야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겨우 알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나는 농부도, 작가도 아닌 “땅” 그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함께 흙 위를 뒹굴던 동료들과 두고두고 그때의 이야기를 반복한다. 우리 땅 위에서 놀 때 정말 좋았지. 어쩐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있었을까.



“개인이 열심히 공부할 때만, 즉 스스로 융합을 멈추지 않을 때 관계는 지속된다. 모여서 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개인 내부의 융합이 있어야 외부와 ‘함께’가 가능하다. 동무(同舞)는 독무(獨舞)가 전제되어야 하고, 운이 좋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 많은 이들이 융합의 어감 때문에 무엇인가가 합해진다고 생각한다. 융합은 합하는 작업이 아니라 융합하는 개별적 몸들이 접속하는 상태다. 융합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각자의 가치관이 충돌하여 새로운 사유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인과 충돌할 자기만의 몸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도반은 믿을 만한, 편한 길동무라기보다는 자극과 긴장 관계에 가깝다.”²⁾



비로소 이 글을 읽으며 지난 삼 년의 과정을 온전히 응원받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고운 밭 앞에 선 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흙 위에서 뒹구는 한 무더기의 땅거지(?)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삼 년 동안 나는 그렇게 삽질했나 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우뚝 선 몸)’이라는 땅거지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놀랍도록 우리는 충만했다.

이번 토제에서 작게 남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함께 서 있고 싶어 했던 한 장면이다. 땅 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각자의 모습대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충분한 감사의 세레머니를 펼치던 순간. 이제 와 말하자면 사실, 사람인지 흙덩어리인지 모르겠는 이 묘한 상태를 여럿이서 경험하고 싶었던 것 같다. 땅에서의 시간은 내게 ‘이건 너무 리얼이라 마치 환상’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으니.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피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을 이끌고 이해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결국 모르겠다는 것은 나쁜 아닐 것이다.

밀스가 좋아한 용어 기예(技藝 craft)는 세 가지 조건을 함축한다. 외롭고 지루한 노동, 완성도에 대한 비타협성, 창의력. “기존의 집단 문화에 저항하라.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법론자가 되자.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론가가 되고, 이론과 방법이 지식(craft)을 생산하는 실천이 되도록 하자.”³⁾

풍산대마작목반의 이종각 대표는 내게 농사를 가르치시며 농경사회에서 유래한 여러 어휘의 뜻을 설명해 주셨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북돋아 준다는 말이다. 밭에서 동그랗게 올라온 흙의 부분을 북이라 부르는데, 거기 심긴 작물의 뿌리 부근을 흙으로 덮어 주는 행위에서 비롯한 이 말은 자꾸



반복해 발음하면 몽글몽글한 감정이 올라와 복 받친다. ‘뭘야, 이거 너무 힘이 나잖아.’ 지계꾼이 자신이 온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 지계꾼의 시를 만들어 내듯이 시인은 그가 온몸으로 사는 것만큼 그의 시를 쓴다. 지계꾼이 아닌 시인이 지계꾼의 고된 삶을 ‘머리’로 사유하거나 ‘심장’으로 애뜻해하면서 지계꾼의 목소리를 그저 재현하려고만 한다면, 그는 곤경에 빠질 것이다. 그가 지계꾼에 대해 쓰려면 지계꾼의 삶을 마치 그가 즐겨 쓰는 필기구처럼 만지고 그 자신의 오감으로 쥐어보아야 한다. 지계꾼의 삶이 자신의 삶에 인접한 것이 되도록 온몸을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쓰이는 시는 지계꾼을 대변하는 시가 아니라, 지계꾼—되기의 시일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했듯이 이러한 ‘되기’는 유비나 모방 혹은 재현의 문제가 아니다. 지계꾼이라는 타자를 만나는 새로운 방식 속에서 시인은 기존의 분배 방식에서 특수한 영역으로 할당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지계꾼도 시인도 아닌 동시에 지계꾼이며 시인인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에 ‘살아보는’ 여러 방식을 도입하는 일이다.⁴⁾ 생태 예술 축제를 받 한가운데 하겠다는 이야기로 모인 난데없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과정 중에 광대를 솟구치며 웃고, 눈꼬리 휘도록 울며 서로의 성장을 1열에서 직관했다. 안동의 하회마을 작은 땅 위에서 있던 이상하고 매력적인 청년들의 성장은 곧 뿌리줄기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버렸다. 주거지와 상관없는, 멀지만 너무나 가깝고, 언제든 금방 접속할 수 있는 마을을 하나 만들어 버린 것이다. 앞으로 땅이 빚어낼 우리의 모습이 벌써 눈앞에 선하다. 미래에서 온 사진을 한 장, 막 받아 쥐고 다시 다음 해의 절기를 챙기고 농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철이 든다는 말을 입속에서 굴러본다.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아는 몸. 그제야 철이 든다면 우리는 조금씩 철이 들고 있는 게 아닌가.

2) 정희진, 「공부는 나의 몸」, 『정희진의 융합』, 한겨레신문, 2021.3.31
3) 정희진, 『정희진처럼 읽기』, 교양인, 2014, p.242.

4) 진은영, 「한 진지한 시인의 고뇌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2010년 여름호(통권 148호)』, 창작과비평, 2010.

안동의 문화예술



생태 예술 축제 '하회, 토제' 참여 후기

배서영

안동에서의 '큰 일'에 <토제>라는 이름이 붙고, "객인 줄 알았더니 주었네. 주가 되니 모두를 대접할 수 있었네."라는 축문이 띄워지자. 마음이 서서히 '땅과 흙'을 향하기 시작했다. 내가 주인으로서 있는 내 안의 '땅'을 찾아 흐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위한 곳이 아닌, 모두 각자 자기만의 곳이 되길 바란다"라는 국회의 바람은 말이 되어 나온 순간부터 어떤 주문이 되어 우리 모두를 실어나르는 바람이 되었다.

<토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곱판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난장판이라고도 하겠다. 토제 당일 대마밭 위에서 벌어질 출산의 순간을 향해가는 진통 같기도 했다. 각자의 염원과 소망이 한데 얽혀 너울거리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 내내 우리를 단단히 잡아준 것은 돌아보건데 '땅'이었다. 혼돈으로 자박자박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힘도 돌아보면 땅이었다. 땅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뿌리를 뿌리로 단단히 잡아주고 있으면서도, 땅 위에서는 잎사귀를 부단히 스치며 소리를 내었다.

'땅'이라는 말에는 마법이 있는 듯하다. 내 몸 저 기저에 깔린 땅을 느끼게 하고, 근원에 깔려있던 욕망과 염원을 모두 위로 용솟음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이를 다시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도 땅이니, <토제>를 통해서야 비로소 땅을

마주하게 된 듯하다.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땅의 지지 위에서 일어나니, 그 위에서 울고 웃고 화내고 화해하는 인간사는 공기 중에 흩어지고 땅에 풀어졌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그려내고, 추진한 국회가 땅이었다. 3년 전 이곳, 안동에 날아와 밭을 일구고 터를 잡은 국회가 땅이 되어 모두를 초대했다.

안동의 전통과 문화의 명맥을 이으며 살아온 주민들이 땅이었다. 그들의 삶에서 삶으로 이어져 내려온 시간과 공간이 있기에 우리가 그 위에 새처럼 날아들 수 있었다.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땅이었다. 사람과 사람이 얽혀 만들어진 땅 위에서 나는 단단히 밭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땅이었다. 내 안에 자리한 삶을 향한 단단한 의지가 나를 땅처럼 받쳐주고 있었다. 그 힘을 딛고 나는 하늘로 뻗어나갔다. 땅 없이는 하늘도 없는 것이었다. 땅과 이어지고, 땅을 내 안에 들이고, 나의 땅이 되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 지반 위에 자리 잡는 시간이었다. 이 힘이 저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또 살게 하겠지. 다음 한 해도 또 풀처럼 자연처럼 살게 하겠지. 겨울과 봄, 여름과 가을이 지나 다시 또 땅을 찾아 <토제>가 돌아오겠지. 그때까지 지날 계절들을 그리며, 다음 계절의 순환을 준비한다.



브레드 어반 테일러
-열가소성 변형
12. 3.(화) ~ 12. 22.(일)
10:00-19: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 5갤러리

브레드 어반 테일러(Brad Evan Taylor)의 작품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물질이 스스로 변형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기 보다는, 물질 자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가 사용하는 작업의 주요 매체는 점토가 불과 만나 일어나는 열가소성 변화이다.



Elles
12. 24.(화)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최고의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이 부르는 니나 시몬(Nina Simone)부터 로베르타 플랙(Roberta Flack), 비요크(Bjork),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 보얀 지(Bojan Z)와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선보인다.



2024 송년음악회
12. 28.(토) 17: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이 지휘자로, 2024 안동 글로벌 영아티스트 콩쿠르 1위를 수상한 피아니스트 정지원, 주세페 디스테파노 등 유럽 국제 콩쿠르를 10회 우승한 소프라노 마혜선, 알카모 국제콩쿠르 1위 및 특별상을 수상한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줄리에타 시미오나토 국제 콩쿠르 1위를 수상한 테너 권재희, 피렌체 국제콩쿠르 1위를 수상한 바리톤 임희성의 정상급 아티스트가 함께 무대에 나선다.



금성산의 붉은 마음, 구름골에 피어나다
10. 15.(화) ~ 2025. 2. 2.(일) 09:00-17:00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은 기탁자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성 산운마을에 뿌리를 내린 영천이씨의 역사와 전통을 후손들의 노력을 담은 전시를 개최한다.

2025 안동암산얼음축제

2025. 1. 18.(토) ~ 1. 26.(일), 암산유원지 일대(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대한(大寒)이와 소한(小寒)이의 신나는 겨울여행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빙질을 자랑하는 안동의 미천(眉川) 암산유원지에서 가족과 함께 '진짜' 겨울을 체험하자!



위대한 시민과 함께 새해 새날을 맞이하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하는 **2025 새해 해맞이**

2025. 1. 1.(수) 오전 7시 장소.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옥상정원

사전 신청 안내

신청혜택 새해 떡국 나눔 및 방한용품 증정

신청기간 2024. 12. 2.(월) ~ 12. 29.(일)

신청방법 네이버 폼 신청(링크 접속 및 QR코드 촬영)
naver.me/xeARwHp8

신청문의 T. 054)857-8561~3
(재)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한국정신문화재단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서울역 ▶ 안동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

 blog.naver.com/afft

 [instagram.com/andongtour](https://www.instagram.com/andongtour)

 www.facebook.com/tourandong

 '안동노닐기' 검색

 **한국정신문화재단**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우)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0
TEL 054)840-3400 FAX 054)852-9230
E-mail wontae@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